

# 행복

|                                              |    |
|----------------------------------------------|----|
| [Phase.0] 갑작스런 강초와 격렬한 수치심                   | 1  |
| [Phase.1] 잊을 수 없는 강초와 숨겨진 쾌감                 | 6  |
| [Phase.2] 부드러운 하프 팬츠와 강초 다시                  | 11 |
| [Phase.3] 매혹의 셀프 강초와 최악의 실패                  | 17 |
| [Phase.4] 하임의 추궁과 무서운 제안                     | 22 |
| [Phase.5] 주말의 다과와 알루미늄의 조건                   | 28 |
| [Phase.6] 알루미늄 찬의 부탁과 무화과 관장                 | 33 |
| [Phase.7] 벗겨내는 향문 수치와 첫 번째 관장                | 38 |
| [Phase.8] 한계 추가 관장과 셀프 칸초 점프                 | 43 |
| [Phase.9] 셀프 칸초의 충격과 날뛰는 비부                  | 49 |
| [Phase.10] 향문 수직 펀치와 절정 사정                   | 54 |
| [11단계] 아침내칸초와누설시                             | 60 |
| [Final Phase] 파렴치한 반성회와 새로운 약속               | 66 |
| [Extra Phase] 꿈 마도로미의 갑작스런 강초와 아침에 일어나 절정 사정 | 71 |
| [Omake Phase] 후리마                            | 76 |

## [Phase.0] 갑작스런 강초와 격렬한 수치심

나는 최근, 앞의 자리의 클래스메이트인 알루미늄씨가 신경이 쓰여 어쩔 수 없다.  
알루미늄의 귀여운 미소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 내 마음은 언제나 두근두근 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 되면, 나는 아무래도 알루미늄의 대화에 섞이고 싶어져 버린다.  
하지만 알루미늄 찬은 인기자로 친구도 많고, 그녀의 주위는 언제나 사람만이 되어 있어, 좀처럼 대화의 고리에는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자신의 책상 위에 올라간다.  
책상 위에 쪽 올라가서 네 권이 되어 양손을 찌른다.  
그대로 얼마 전의 자리에 몸을 내밀는 것이다. 이것으로 위에서 대화에 들어갈 수 있다.  
알루미늄의 뒤에 있는 나만의 특권이다.

「저기, 알루미늄짱. 조금 전 수업의 노트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네번 기어 그대로, 알루미늄 짱의 얼굴을 들여다 보게 하고 말을 걸었다.

「아, 실룡군」  
아루미 짱이 쿵쿵 뒤돌아보고, 즐겁게 미소 지었다.

「또 책상 위에 올라가고 있는 거야?」  
「...

옆의 자리에서 쌍둥이 언니의 하임이 로텐션한 말을 걸어온다.  
"좋지 않아요, 하임. 이 모습이 알루미늄의 얼굴이 잘 보입니다."  
"이상한 실롱 군"

알루미늄이 쿠스쿠스와 귀여운 목소리로 웃었다.  
내가 기빠지고, 또 네 번 기어가는 자세 그대로 몸을 내밀었다.  
책상 위에서 4개씩 기어가게 되어 전경 자세를 강화한다.  
그것에 의해서 나의 엉덩이는, 뒤를 향해 높이 돌출된 모습이 되어 있었다.  
바지가 굉장히 당겨져 내 항문 근처가 무방비로 튀어나온 상태다.  
물론 나는 알루미늄과 이야기하는데 열중하고, 자신의 항문이 무방비가 되어 있는 것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알루미늄짱, 오늘 방과후는 뭔가 예정이 있나요?」

「응, 특별히 없어?」

「진짜입니까! 그럼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에—, 어떻게 할까」

"부탁입니다! 함께 돌아가자!"

나는 더 필사적이 되어, 책상 위에서 4번 기어 그대로 앞으로 가득 채움을 걸었다.  
엉덩이가 점점 높아지고 무방비한 항문이 뒤에 있는 누구의 시선에도 노출되는 형태가 된다.

「실롱, 엉덩이가 완전히 무방비야...

하임이 어지러운 것처럼 나의 엉덩이 근처를 응시해 말했다.

"괜찮아요! 뒤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나는 알루미늄의 반응이 보고 싶어서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다.

설마 자신의 무방비한 항문에, 무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 때였다.

즈뵈!!

「하우!?!?」

갑자기 마치 엉덩이가 폭발한 듯한 충격을 받아 내 항문을 격렬하게 무언가가 달려간 감기가 있었다.

바지와 속옷을 뚫고 엄청난 기세로 뭔가 엉덩이에서 배 아래까지 즈돈과 뚫린 것이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가 따라잡지 않았다.

마치 눈으로부터 별이 튀어나오는 듯한 강렬한 놀라움.

그냥 충격이 항문에서 배까지 달아 머리 속이 새하얗게 된다.

아픈 것은 아니다.

항문으로부터 신체의 가운데를 일직선으로 관철되는 무거운 충격.

나는 책상 위에서 네 번 기어 다니는 자세 그대로 굳어 버렸다.

입을 반개로 하고, 눈을 바라본 채의 사이 빠진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한심한 비명을 내고 버리고 있었다.

「하우!?!?」라고 하는, 폐로부터 숨을 짜내는 것 같은, 이상하고 기묘한 목소리가 교실중에 울려 퍼진 것이다.

「... .. 에?」

눈앞에 있던 알루미늄이 입을 손으로 눌러 눈을 둥글게 하고 있다.

"시롱군.....?"

「.....뭐.....지금의 목소리...

하임도 믿을 수 없는 것을 보는 것 같은 눈을 하고, 내 얼굴을 응시하고 있다.

알루미늄 짱도, 하임에도, 완전히 볼 수 있어 버렸다.

항문을 관통한 순간의, 나의 사이 빠지는 표정과, 뒤집은 이상한 비명을.

나는 칸초 된 것이다.

지~응과 항문이 가려진다.

"으, 아....."

부끄러움으로, 단번에 얼굴이 끓는 것처럼 뜨거워진다.

충격으로부터 몇 초 늦게, 내 머리 속에 드디어 이해가 따라 왔다.

나의 항문으로부터 진과 뜨겁고 가려운 감각이 주위에 퍼져 간다.

진진, 진진.

항문이 뜨겁다.

나는 지금, 네번 기어서 돌출하고 있던 엉덩이에, 항문에, 힘 가득한 강초를 먹은 것이다.

"하하하하하하! 대성공-!"

뒤에서, 클래스메이트의 컨디션 남자의 대폭소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되돌아 보면, 두 손가락서서 배를 안고 웃고 있었다.

「어이오이 실롬!

클래스 중의 학생들이 일제히 이쪽으로 시선을 향해 온다.

「우와, 실롬군, 칸초 됐어!»

「대단한 소리 내고 있었지!»

「하우!?

클래스메이트 모두의 시선이 책상 위에 굳어져 있는 나에게 집중한다.

부끄럽다.

부끄러워서 죽고 싶다.

좋아하는 알루미늄의 바로 눈앞에서, 나는 강초를 먹고 빠져나간 목소리를 올려 버린 것이다.

"아하하! 알루미늄 짱!? 실롬군의 얼굴!"

아조의 남자가, 알루미늄을 향해 웃는다.

「에, 아, 응... .. 깜짝 놀랐어...

알루미늄 짱은 뺨을 조금 붉게 하고 부끄럽게 나에게 눈을 돌렸다.

아아, 알루미늄 짱에게 나의 최저로 빠진 칸초 모습을 볼 수 버렸다.

그것만으로도 수치심으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데, 조자의 남자는 추격을 그만두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강초를 한 검지 손가락을 자신의 코 앞에 접근시킨 것이다.

그리고, 쿤쿤과 냄새를 맡는 행동을 했다.

「우와——— !!」

남자가 일부러 답게 엄청난 목소리를 낸다.

「쿠세— ! ! ! ! ! ! ! ! !」

「뭐.....!？」

나는 말을 잃었다.

"이봐, 모두 들어라! 실롬의 항문, 굉장히 냄새가 난다!!

교실중이 대폭소에 휩싸였다.

"에-! 야다-. 실롬 군의 항문, 똥 냄새!?"

"칸초 된 손가락이 똥 냄새가 너무 위험하다!"

클래스메이트들이 입에 나를 바보로 웃는다.

「치, 다릅니다! 똥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반박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잘 말할 수 없다.

"거짓말쟁이! 칸초한 내 손가락이 이렇게 똥 냄새야!"

"시름, 제대로 엉덩이 닦지 않았잖아-?"

「항문 안에 똥이 막혀 있지 않나!？」

상세하게, 너무 상세하게, 내 항문과 똥을 바보로 되어 간다.

굴욕이다.

너무나 굉장한 굴욕과 수치심에, 신체중에서 땀이 뚝뚝 나온다.

좋아하는 알루미늄 짱에, 내 항문이 똥 냄새라고 생각되어 버린다니.

알루미늄 짱은 신경 쓰지 않지만, 조금 웃음을 지으며 나를 보고 있다.

"시름군.....괜찮아.....?"

알루미늄 짱에 걱정되는 것조차 지금의 나에게는 맹렬한 부끄러움 밖에 없었다.

"다, 괜찮습니다.....!"

나는 당황하고 책상 위에서 내려서, 자신의 자리에 다시 앉았다.

의자에 엉덩이가 닿은 순간, 강조된 항문이 진진과 뜨겁게 가려지는 자극을 느꼈다.

「... .. 바보가 아니야, 실롬」

하임이 옆에서 허와 깊은 한숨을 내린다.

「...

「우우.....하임...

나는 얼굴을 새빨갳게 하고, 자신의 책상에 엎드렸다.

그 후, 킁킁과 수업 개시의 차임이 울렸다.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와 수업이 시작된다.

하지만, 나는 전혀 수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리 속은 방금전의 강조로 가득했기 때문이다.

칸초 된 순간의 「즈보!!」라고 하는 감각이, 머리로부터 떠나지 않는다.

추억할 때마다 가슴이 도쿰, 도쿰과 격렬하게 맥박치는다.

두근두근이 멈추지 않는다.

그렇게 클래스 전원 앞에서 수치에 노출된 것은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하우!?!?」 따위 빠진 목소리를 알루미늄에게 물어 버린 부끄러움.

자신의 항문이 똥 냄새와 클래스 중에서 소란을 당한 부끄러움.

떠올리는 것만으로 얼굴이 불빛나고, 귀까지 새빨갳게 되어 버린다.

하지만, 나를 동요시키고 있는 것은 수치심만이 아니었다.

언젠가 자신의 의식이 엉덩이의 안쪽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

칸초를 먹은 내 항문이 지금도 진진과 뜨겁게 가려져 있는 것이다.

진진, 진진.

항문이 뜨겁다.

의자에 앉아 있으면, 체중이 걸릴 때마다 항문이 짹 조이는 것 같은 감각이 된다.

항문이라고 하는,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되는 제일 섬세한 장소.

거기에 손가락을 즈보와 찌르는 강렬한 악회를 당한 것이다.

그 섬세한 항문에의 자극을 회상할 때마다, 가슴의 안쪽이 쿡과 수상하고 달콤하게 알았다.

부끄러운 것인데, 분한 것인데.

항문에 즈보와 손가락을 넣어진 느낌을 상기하면 배의 바닥이 멍청이로 버린다.

「.....실롬?」

옆에서 하임이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다.

「...얼굴, 굉장히 붉지만...

「어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황해서 목소리를 뒤집으면서 부정했다.

「... .. 이상한 거야」

하임은 신기하게 나를 보고 나서, 또 칠판에 시선을 되돌렸다.  
○ 나는 생 침을 곡식으로 삼키었다.  
앞의 자리에는, 알루미늄의 아름다운 등이 보인다.  
알루미늄은 진지하게 수업을 받고 있지만, 가끔 내 쪽을 깜짝 신경쓰고 있는 것 같았다.  
알루미늄 찬은 조금 전의 내 향문, 아직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한 순간, 다시 한번 가슴이 격렬하게 도쿤과 뛰어올랐다.  
알루미늄 짱에게 내 향문을 의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똥 냄새는 바보가 된 나의 섬세한 향문을.  
그렇게 생각하면, 부끄러움과 가슴의 동요로, 어떻게 되어 버릴 것 같았다.

진진. 진진.

칸초 된 향문의 열이 일향으로 당기지 않는다.  
오히려 생각나면 기억할수록 향문의 존재감이 강해진다.  
바지 너머로 자신의 향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어쩔 수 없다.  
4번 기어가고, 무방비로 엉덩이를 내밀고 있던 자신.  
거기에 일직선에 덮쳐 온, 강초의 충격.  
즈뵈!! 라는 소리와 함께, 배의 안쪽까지 달은 손가락의 감촉.  
눈에서 별이 나올 정도의 놀라움과 입에서 나온 사이 빠진 외침.  
「하우!?!?」라고, 나, 어째서 그런 소리를 내버렸을 것이다.  
알루미늄 짱 앞에서, 그런 소리를 낸다니.  
생각나는 것만으로 얼굴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부끄럽다.  
하지만, 칸초 때문에 가볍게 애완하고 있는 향문이 묘하게 신경이 쓰이고 떠나지 않는다.  
섬세한 향문을 난폭하게 괴롭혔다는 사실이 내 마음을 격렬하게 흐트러뜨리는 것이다.  
「...  
나는 작고 작게 중얼거리고, 자신의 양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정말로 똥 냄새였던 것일까.  
나의 향문은, 그렇게 똥의 냄새가 있었던 것일까.  
알루미늄 짱에, 똥 냄새 향문의 소유자라고 생각되어 버린 것일까.  
수치심으로 가슴이 찌그러질 것 같다.  
하지만 그 수치심만큼이나 향문의 진진으로 한 흔들림이 나를 미치게 한다.  
칸초 된 향문이 뜨겁다.  
엉덩이가 꼭 흐려질 때마다 칸초되었을 때의 충격이 되살아난다.  
수업의 칠판의 문자는, 또 하나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선생님의 교편을 흔드는 소리도 먼 사건처럼 들린다.  
나의 뇌내는 지금, 강초된 자신의 향문과, 똥린 수치심만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하아.....하아....."  
얇은 숨이 새는다.  
체온이 오르고 옷 속이 차분히 땀이 흘러나오는 것을 알았다.  
쉬는 시간이 되면, 나는 알루미늄 찬에게 어떻게 사과하면 좋을 것이다.  
아니, 사과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 것이다.  
칸초되어 「하으!?!?」라고 외치고, 똥 냄새와 바보가 된 나.  
벌써 앞처럼 네 권으로 책상에 올라 몸을 쏟아내는 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또 엉덩이를 돌출하면, 또 칸초되어 버릴지도 모르니까.  
가랑이 사이의 안쪽, 향문 근처가 쿤과 수상하게 알았다.  
또 초초되면 어쩔까 하는 불안과 어딘가 그것을 기대해 버리는 기분.  
섬세한 향문에 주어진 강초의 충격은 그만큼 내 마음을 빼앗아 버린 것이다.

진진. 진진.

엉덩이의 열은 언젠가 되어도 식을 기색이 없다.  
오히려 점점 열을 늘려, 내 항문이 존재감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칸초의 갑작스런 느낌.  
배까지 달은 그 충격.  
그리고 클래스 중에 울려 퍼진 똥 콜.  
나는 수업중, 계속 자신의 항문을 모지모지와 문지르게 하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가슴의 두근두근은 일방에 맞지 않는다.  
알루미늄의 등을 바라보면서, 나는 진진으로 하는 항문의 감촉에 가슴을 끌게 하도록 몸을 기울였다.  
수치심과 섬세한 장소에 대한 악연에, 내 마음과 엉덩이는 완전히 지배되고 있었다.  
수업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 나는 단지 오로지 칸초 된 항문의 불빛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 [Phase.1] 잊을 수 없는 강초와 숨겨진 쾌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쓰러져도 오늘의 강초의 사건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뇌리에 구워져 있는 것은, 그 순간의 광경과 감촉이다.  
클래스메이트의 눈앞에서, 4개씩 기어가 돌출하고 있던 나의 항문.  
거기에 습격당한 격렬한 강초.  
알루미늄 짱의 눈앞에서 빠진 목소리를 높여 버린 수치심.  
그리고, 강초를 한 남자에게 손가락의 냄새를 맡아, 똥 냄새와 큰 소리로 바보로 된 굴욕.  
「으...

나는 베개에 얼굴을 밀어넣고, 한심한 혼잣말을 흘렸다.  
그 때, 클래스중에 울려 퍼진 대폭소.  
"시름의 항문은 똥 냄새"라는 큰 소란.  
떠올리는 것만으로 얼굴이 불빛, 신체중에서 싫은 땀이 땀어져 온다.  
하지만, 나를 미치게 하는 것은 부끄러움만이 아니었다.  
귀가하고 나서도, 내 항문은 계속 진진과 뜨겁게 가려져 있다.  
바지와 서류 너머로 느끼는 자신의 항문의 존재감.  
나는 침대 위에서 자신의 가랑이에 살짝 손을 뻗었다.  
실은, 단지 놀랄 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단지 부끄러웠을 뿐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 불의타로 된 격렬한 강초.  
항문에서 배의 바닥까지 즈돈과 울린, 그 강초의 충격.  
나는 무서운 것에, 그 강초를 기분 좋다고 생각해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나는 적면하면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강렬하게 항문을 관통한 순간의 눈에서 별이 나오는 충격.  
그건 틀림없이 내 몸을 심에서 흔들리는 쾌감이었던 것이다.  
부끄러움과 굴욕으로 가득했을 것인데, 신체는 그 강초의 쾌감을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다.

즈뵈!!

라고 찢렸을 때의, 배의 안쪽이 쿡과 위축하는 것 같은 감각.  
자신의 항문이, 그 강초의 감촉을 찾아 뜨겁게 알고 있었다.  
「... .. 다시 한번, 그 감촉을 확인해보고 싶다...  
나는 의를 걸고, 침대에 잠들어 있는 채로 다리를 구부리고 바지를 벗고, 흰색 브리프 위로부터, 자신의 항문에 무서워하는 무서운 손가락을 대었다.  
엉덩이의 균열의 안쪽에 있는, 뜨겁게 불빛난 나의 항문.  
브리프 옷감 너머로 손가락 끝으로 자신의 항문의 윤곽과 구멍을 느낀다.  
구멍은 나의 호흡에 맞추어 꼭 수축하고 있었다.  
진지하게 가려져 있는 항문에, 손가락의 배를 눌러 맞췄다.  
칸초 된 부분을 천천히 압박해 본다.

"응....."

겸손한 목소리가 새었다.  
밀린 항문이 꼭 조여 배의 바닥에 자극이 달린다.  
나는 브리프 위에서, 한층 더 훨씬 강하게 항문을 눌러 보았다.  
쿡, 흠, 과 완급을 붙여 보자.  
항문을 밀어넣는 힘을 바꾸면서 필사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곳.

곳, 흠.

팬티 너머로 항문이 밀려 구멍이 굉장히 수축한다.  
스스로 자신의 항문을 자극하는 행위에 맹렬한 수치심이 솟아오른다.  
「하아... .. 하아...  
자신의 목소리조차 속삭이면서 나는 완급을 붙여 보았다.  
굉장히 깊게 눌러, 항문의 안쪽에 자극을 달게 한다.  
쿡, 쪽, 과 연속으로 눌러, 그 강초의 충격을 재현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밀어도 뭔가 달랐다.  
「... .. 저기...  
나는 목을 굽고, 한층 더 훨씬 강하게 서류 위에서 항문을 눌러 보았다.  
곳, 흠.  
밀어넣는 힘을 강하게 해도, 그 때의 충격에는 그리 멀다.  
스스로 아무리 바지 위에서 항문을 밀어도 그 칸초되었을 때와 같은 충격이 되지 않는 것이다.  
「어째서일까요... .. 스스로 훨씬 밀고 있는데...  
스스로 밀고 있는 이상, 언제, 얼마나의 힘으로 항문이 밀리는지, 자신의 뇌가 알고 버리고 있다.  
거기에는 아무런 뜻밖의 느낌도 없다.  
칸초된 그 순간과 같은 예기치 못한 충격이 없는 것이다.  
갑작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 좋게는 될 수 없다고, 나는 눈치챘다.  
「아아... .. 그런가... ..  
스스로 자신의 항문을 밀어도 다만 천을 넘어 밀리고 있다는 자각이 있을 뿐이다.  
그 때의 즈뵈!! 라고 하는, 배까지 달는 찌르는 것 같은 불의타의 충격은, 자신의 손으로는 만들 수 없다.  
갑자기 항문을 찢렸기 때문에 그 강렬한 쾌감이 탄생한 것이다.  
".....아쉬워요...

나는 흠, 쿵, 과 몇번이나 완급을 붙여 서류 위의 향문을 계속 누르고 있었지만, 불만만이 모여 간다.

자신의 손으로의 자극에서는, 그 강초의 충격의 발밑에도 미치지 않는다.

칸초 된 순간의 눈에서 별이 튀어나오는 놀라움과 배에 울리는 격렬한 자극.

그것이 그리워서 견딜 수 없다.

자신의 무방비한 향문에, 갑자기 즈돈과 찌르는 갑작스런 강초.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기분 좋아져 버린 것이다.

「저는...

스스로 자신의 향문을 누르는 손을 멈추고 나는 고향으로 되어 천장을 올려다봤다.

부끄럽다.

자신이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니 너무 부끄러워서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다.

학교에서는 4개씩 기어들어 칸초되어, 빠진 목소리를 올려 모두 바보가 되었다.

칸초된 손가락이 똥 냄새로 떠들썩해져, 내 향문은 똥이 막혀 있다고 웃었다.

알루미늄 양 앞에서 최저 최악의 수치를 노출한 것이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강초의 의심의 기분 좋음만.

팬티 너머로 자신의 향문을 눌러도 만족할 수 없다는 얄은 불만의 일뿐이다.

「.....」

나는 조금 전에 향문에 닿았던 손가락의 냄새를 살짝 냄새 맡았다.

배설물의 냄새보다는 땀의 냄새.

하지만, 그것만이 아닌 엉덩이 독특한 냄새. 냄새가 아니라 어딘가 정액과 비슷한 냄새.

이것이 장액의 성분이 정액과 일부 공통되어 있는 탓일까.

「우우... .. 내 헨타이.....! 자신의 향문이 강초로 기분이 좋다니... 」

나는 침대 위에서 번창했다.

얼굴이 불빛나고, 전신이 뜨겁다.

하지만, 엉덩이의 안쪽 진진으로 한 가려움은, 일방에 사라져 주지 않는 것이다.

칸초된 향문이 계속 열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찢린 그 쾌감을 기억해 버린 나의 향문.

스스로 눌러도 채워지지 않는 향문.

쿵, 흠, 하고 완급을 붙여 밀어도, 갑작스런 충격이 없기 때문에 기분 좋아질 수 없다.

「.....또, 그 강초를 하면...

문득, 무서운 생각이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내일, 학교에서 또 그 남자에게 불의타로 칸초되면.

또 네 번 기어가고 있을 때, 『즈보!!』라고 향문을 찌르면.

상상한 것만으로 가슴이 도쿰! 와 크게 뛰어 올랐다.

심장이 심하게 맥박치고 호흡이 거칠어진다.

"아.....하아..... 안돼요...

상상 속의 불의치는 강초만으로, 배의 바닥이 쿵으로 가려져 버린다.

알루미늄 짱에 보이기 전에, 또한 갑자기 향문을 격렬하게 깎아지는 장면.

「하우!?」라고 한심한 목소리를 울리고, 배까지 달는 갑작스런 충격에 몸을 기울이게 하는 자신.

"오늘도 실룡의 향문, 똥 냄새!"라고 클래스 중에 바보가되는 상상.

그 맹렬한 부끄러움과 갑자기 강초의 강렬한 쾌감이 머리 속에서 섞여 간다.

「하아... .. 하아...

나는 참을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서류 위에 손을 뻗었다.

자신의 향문 위에 손가락을 대고, 흠, 쪽, 과 강하게 눌러 보인다.

밀어 넣어 본다.

완급을 하고 강하고 약하며 향문을 자극해 본다.

하지만, 역시 안되는 것이다.

「... .. 역시 스스로 눌러도 안 됩니다...

아무리 강하게 눌러도, 자신의 손에 의한 자극은 어디까지 가도 「스스로 밀고 있는 자극」일 뿐이다.

칸초가 가진, 그 압도적인 불의타감.

방심하고 있던 향문에, 갑자기 찌르는 그 극적인 충격.

눈으로부터 별이 튀어나오는 놀라움과 함께 밀려오는 그 쾌감에는 달지 않는다.

「불의타의 강초가 아니면...

나는 저의 향문에서 손을 떼고 탈력하도록 침대에 쓰러졌다.

회개하고, 한심하고, 부끄럽고 눈물이 흘러 온다.

자신의 손으로 서류 위에서 아무리 눌러도 만족할 수 없다니.

나는 완전하게, 그 불의타의 강초의 포로가 되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섬세하고 무방비한 향문을, 불의타로 격렬하게 찢리는 쾌감.

「.....알루미늄짱... .. 도와주세요...

알루미늄의 귀여운 미소를 떠올린다.

알루미늄은, 나의 향문이 똥 냄새와 바보로 되어 있을 때, 어떤 기분으로 보고 있었을 것이다.

멍청했던 것일까.

아니면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일까.

「시름군의 향문, 똥 냄새야...

그렇게 생각하면 부끄러움으로 미치게 되지만, 그와 동시에 가랑이의 안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똥 냄새와 바보가 된 나의 섬세한 향문.

그 향문이 칸초의 갑작스런 충격으로 기분 좋아지고 있었다니, 알루미늄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 것이다.

「... .. 말할 수 없습니다... .. 절대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불을 머리에서 쓰고 어둠 속에서 몸을 둥글게 했다.

어둠 속에서도 엉덩이의 불빛은 분명하게 느껴졌다.

진진.

진진.

칸초된 향문이 뜨겁게 맥박치고 있다.

브리프와 피부가 굼히는 것만으로, 강초의 감각이 되살아 오는 것 같다.

스스로 팬츠의 위로부터 흠, 폭, 라고 누른 감촉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남아있는 것은, 그 불의타의 감촉뿐이다.

즈뵃!!

그 충격의 소리조차, 머리 속에서 몇번이나 리프레인 한다.

「하아... .. 하아...

아픈 것은 아니었다.

단지 배의 바닥까지 닿는 충격과, 불의를 찢린 놀라움.

그게 내 섬세한 향문을 직격하고 강렬한 쾌감을 심어 버렸다.

「... .. 불의치기 때문에...

나는 몇번째가 될지 모르는 한숨을 쉬었다.

스스로 밀어 넣어도, 그 충격은 되지 않는다.

스스로 아무리 완급을 붙여 밀어도, 갑작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분 좋게는 될 수 없다.

그 사실이 내 가슴을 수상하게 조여준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또 누군가에게 불의타로 칸초 되지 않는 한, 그 기분 좋음을 맛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뭐,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요, 저는...

자신의 무서운 사고를 깨달아 당황해서 머리를 흔들었다.

칸초되면, 또 클래스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된다.

또 「하우!」라는 이상한 목소리를 내버릴지도 모른다.

또 손가락의 냄새를 맡아 「똥 냄새!」라고 소란스러워 버릴지도 모른다.

알루미늄 짱 앞에서 또 부끄러운 강초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런데, 부끄러워서 견딜 리가 없다.

하지만.

마음의 어딘가에서 그 공포와 부끄러움을 기대하고 있는 자신이 있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불의치는 칸초로 향문을 관통하는 쾌감.

그 자극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배의 바닥이 쿵쿵과 뜨겁게 얹어 버리는 것이다.

「... ..우우... .. 내 엉덩이...

이불 속에서 나는 나의 양손으로 엉덩이를 짹 감쌌다.

브리프 위에서 가볍게 만진다.

누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만질 뿐.

스스로 눌러도 그 불의타의 기분이 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애절함이 모인다.

칸초 된 그 충격.

배까지 달는 즈돈이라는 감촉.

그 불의의 감각이, 지금도라도 갖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

「... .. 내일 학교에 가면...

포츠리와 스스로도 놀라운 말이 입에서 새어 나왔다.

내일, 쉬는 시간이 되면.

나는 또 알루미늄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책상 위에 올라가 네번 기어가는 것일까.

무방비예, 엉덩이를 높이 돌출해.

칸초 해 주세요라고 말할 뿐의 모습으로, 4번 기어가는 것일까.

「... .. 네, 아니.....

아무도 보지 않은 이불 속에서 필사적으로 자신에게 변명을 한다.

하지만, 네 번 기어 가면, 또 뒤에서 불의타로 칸초 될지도 모른다.

그 남자가, 또 즈보!! 나의 향문을 노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상상한 순간, 내 몸 안에 전격과 같은 흔들림이 달렸다.

「흠...

무심코 침대 위에서 몸이 튀었다.

상상한 것만으로, 이렇게도 격렬한 쾌감이 전신을 달려다니.

자신의 섬세한 향문이, 불의타의 강초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스스로 바지 위에서 아무리 밀어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알고 버린다.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손에 의한 자극이 아니다.

타인의 손에 의한, 방심한 순간의, 격렬한 불의치는 강초인 것이다.

「하아... .. 하아... .. 무서운데...

수치심과 인정하기 어려운 쾌감의 판 사이에, 나는 밤늦게까지 가슴을 뛰쳐나갔다.

브리프 위에서 아무리 눌러도 달지 않는, 그 불의타의 충격.

진진과 뜨겁게 가려지는 향문의 감촉을 느끼면서 나는 몇번이나 잠자리를 쳤다.

내일 학교에서 알루미늄을 만나는 것이 무섭다.

똥 냄새와 바보가되는 것이 부끄럽다.

「... .. 내 항문...

어둠 속에서 나는 중얼거렸다.

공포와 기대가 섞인다.

스스로 아무리 눌러도 얻을 수 없는 갑작스런 충격.

그 아픔이 없는, 배의 바닥까지 울리는 강초의 감촉.

그것을 생각해낼 때마다, 나의 엉덩이는 진진과 환희의 열을 계속 올렸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덮으면서도, 나는 내일 방문할지도 모르는 의심의 공포와 쾌감에 몸을 떨게 한다.

나는 내일 역시, 그 무방비한 엉덩이를 돌출해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잠들 수 없는 밤을 보냈던 것이었다.

## [Phase.2] 부드러운 하프 팬츠와 강초 다시

다음날, 나는 어제까지처럼 가볍게 책상 위에 오르지 않았다.

아침의 쉬는 시간도, 낮전의 쉬는 시간도, 온순하게 자신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강초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였다.

나는 어제보다 더 강한 강초를 진심으로 찾아 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유니폼 바지 너머로는 부족해졌다.

더 직접적으로, 내 섬세한 항문에 배까지 닿는 충격을 주었으면 했던 것이다.

그런 나에게 있어서, 절호의 기회가 방문하게 되었다.

오늘의 4시간째의 수업은 체육.

체육 시간은 갈아입고 학교 지정 체조복인 하프 팬츠가 된다.

이 체육의 하프 팬츠는, 신축성이 뛰어난 매우 부드러운 천으로 되어 있었다.

보통 제복 바지와 달리 원단이 얇고 유연하게 몸에 맞는다.

이것이라면 강초의 충격이 직접 항문에 닿을 것이다.

상상한 것만으로, 내 항문은 배의 바닥에서 진진과 수상하게 가려져 버린다.

4시간째의 체육의 수업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행해졌다.

남자는 그라운드에서 축구, 여자는 체육관에서 농구다.

체육 수업중에도, 나는 자신의 하프 팬츠 너머의 엉덩이만 신경이 쓰이고 있었다.

달릴 때마다 부드러운 천이 내 무방비한 항문을 만진다.

그것만으로 가슴이 도쿤과 튀어 오르고, 강초되었을 때의 쾌감이 되살아나는 것이다.

하지만, 단지 강초되는 것만으로는 싫었다.

알루미늄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좋았다.

알루미늄 찬의 눈앞에서, 그 강렬한 수치심과 함께 불의치는 강초를 마토모에게 먹고 싶다.

알루미늄 짱의 눈앞에서 「하우!？」라고 빠져나가는 목소리를 내고 싶다.

그 압도적인 부끄러움과 굴욕이 있어서야 불의치는 강초의 쾌감은 최고조에 이르니까.

4시간째 체육 수업이 끝나고 차임이 울렸다.

다음은 급식 시간이다.

남학생들이 땀을 닦으면서 속속 교실로 돌아간다.

남자는 교실에서 갈아입는다. 본래라면 여자가 돌아올 때까지 갈아 끝나야 한다.

나는 일부러 갈아입는 것이 늦은 척했다.

주위의 남자들이 제복으로 갈아 마치는 것을, 꺾임과 옆눈으로 보면서 천천히 움직인다.

체조착의 하프 팬츠 모습 그대로, 일부러 트로트로와 시간을 벌는 것이다.  
신축성이 있는 부드러운 하프 팬츠가, 나의 하반신을 상냥하게 감싸고 있다.  
이윽고 여자체육 수업을 마친 여학생들이 웃을 갈아입고 교실로 돌아왔다.  
「아—, 오늘의 농구 즐거웠어—!」  
듣는 기억이 있는 귀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루미눔 짱이다.  
알루미눔이 웃는 얼굴로 교실에 들어왔다.  
그 옆에는 여전히 로텐션인 쌍둥이 누나의 하이임도 있다.  
알루미눔은 앉았다.  
지금이라며 나는 마음속에서 외쳤다.  
체조착의 하프 팬츠 모습 그대로, 나는 재빠르게 행동을 개시했다.  
제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채 자신의 책상 위에 헛되게 발을 걸친다.  
그리고, 알루미눔의 자리를 향해, 책상 위에서 엉덩이를 밀어내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 4개씩  
기어갔다.  
양손을 책상에 짚고, 얼마 전경 자세를 취한다.  
"알루미 짱! 체육 수고하셨습니다! 농구는 어땠어?"  
○ 나는 4견 기세의 자세인 채, 알루미눔의 얼굴을 들여다 봤다.  
「아, 실룡군! 수고하셨습니다!」  
알루미눔이 확실히 미소가 되어 내 얼굴을 봤다.  
「네! 알루미눔 제대로 빨리 이야기하고 싶어서, 갈아 입는 것을 후회해 버렸습니다!」  
나는 무고한 척을 하고, 더욱 4견 기세를 깊게 했다.  
구 얼마 전의 척이 되어, 양팔에 체중을 건다.  
그것에 의해, 나의 하프 팬츠로 감싸인 엉덩이는, 뒤를 향해 높이 높게 돌출되었다.  
체조 착용의 하프 팬츠는 신축성이 뛰어나므로 내 움직임에 맞게 딱 엉덩이에 밀착한다.  
천이 훨씬 끌려 내 항문의 형태가 하프 팬츠 위에서 선명하게 떠오르는 상태가 되었다.  
부드러운 천 1장으로 분리되었을 뿐, 완전히 무방비한 내 항문.  
오늘은 어제에 비해 양 다리를 꽤 대담하게 열었다.  
「...」  
하이임이 내 엉덩이 근처를 바라보면서 어리석은 목소리를 냈다.  
「좋지 않아요! 저는 이 분이 진정해요!」  
나는 하이임에 적당하게 대답하면서 뒤로 튀어나온 엉덩이에 신경을 집중시켰다.  
「.....」  
아니, 안 된다. 집중하지 말라. 엉덩이는 잊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되지 않으니까.  
심장이 파열할 정도로 격렬하게 독덕과 울려 퍼지고 있다.  
체조 착용의 부드러운 하프 팬츠 너머로 느끼는, 교실의 공기.  
엉덩이를 높이 돌출한 4견 기세의 자세.  
눈앞에는 즐겁게 웃는 알루미눔 짱.  
선전은 완전히 갇추어져 있었다.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기색을 희미하게 느낀다.  
어제, 나의 항문에 강초를 훑어 온, 그 조자의 남학생의 기색이다.  
나는 깨닫지 못한 척했다.  
뒤를 되돌아 보지 않고, 단지 전만을 보고, 알루미눔과 대화를 계속한다.  
뒤에서 남자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노력해 잊으려고 했다.  
갑작스럽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알루미짱, 오늘의 급식 메뉴, 웬지 알고 계십니까?」  
「어, 확실히 오늘은 카레가 아니었나?」  
「진짜입니까! 카레 라이스입니까!

「소다네 🍷」

「아하하하」

ㄴ 나는 일부러 굉장히 리액션을 취해, 네번 기어 그대로 더욱 엉덩이를 높이 밀어 올렸다.

하프 팬츠의 부드러운 원단이 내 항문에 더욱 딱 맞는다.

무방비한 항문이 뒤의 학생들을 향해 완전히 노출된 듯한 착각에 사로잡힌다.

배의 바닥이 쿵쿵과 뜨겁게 알아 호흡이 알아져 간다.

온다. 절대로 온다.

나의 무방비한 항문을 눈에 띄고, 그 강렬한 손가락이 다가오고 있다.

긴장과 기대로, 나의 신체는 가쿠가쿠와 떨릴 것 같았다.

하지만 의식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나 방심한 척을 하고, 불의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다.

「카레, 실롱군도 좋아해!」

「네! 사랑해요! 함께 많이 먹자!」

알루미눔 짱에게 말을 걸면서 나는 가슴을 뛰쳐나갔다.

부드러운 하프 팬츠 너머로 노리는 나의 섬세한 항문.

스스로 팬츠의 위로부터 흠, 흠, 라고 눌러도 만족할 수 없었던 그 충격.

즈뵈트!!

「우우!?!?!?」

예기치 않은 타이밍에 어제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충격이 내 항문을 직격했다.

신축성이 뛰어난 부드러운 하프 팬츠를 넘어, 게다가 양 다리 크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남자의 손가락 끝이 내 항문의 깊숙이로 찢린다.

천이 얇은 만큼 다이렉트 너무 감각이 내 하체를 관통했다.

배의 바닥까지 즈뵈트와 달는, 관능적인까지의 불의타의 강초.

충격이 너무나, 내 시야 속에서 딱 눈부신 별이 흩어졌다.

뭐가 일어났는지, 한순간, 뇌의 이해가 완전히 동결된다.

아픈 것이 아니다.

단지, 항문으로부터 배의 심까지 뚫는 것 같은, 심상이 아닌 강렬한 자극.

그리고 나는, 어제 이상의 한심한 뒤집힌 비명을, 교실중에 뿌려 버리고 있었다.

「우우!?!?!?」라고 하는 기묘 극히 없는 절규.

입을 한계까지 크게 열어 눈을 점으로 굳어지는 나 사이 너무 빠지는 얼굴.

"까아!? 시, 실롱군.....!?"

눈앞에 있던 알루미눔 짱이 너무 외치는 소리에 놀라서 뛰어오르고 눈을 뜨고 굳어진 내

얼굴을 직시하고 있다.

「... .. 역시 됐다.

하임이 어리석은 얼굴로, 내 돌출된 엉덩이를 보고 있다.

몇 초 늦게, 내 머리 속에 맹렬한 열파가 밀려왔다.

내가 지금 무엇을했는지 늦게 이해한다.

하프 팬츠의 부드러운 옷감 너머로, 무방비한 항문을 전력으로 칸초 된 것이다.

진진, 진진.

칸초 된 나의 항문이 맹렬한 열을 가지고 극적으로 가려져 있었다.

부드러운 원단 덕분에 손가락의 압력이 어제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안쪽까지 도달하고있다.

"갓하하하하하하! 또 잡았어!"

뒤에서, 조자의 남자가 대폭소를 작렬시켰다.

급식 전 교실에 있던 반 친구들이 일제히 내 쪽을 향해 대폭소하기 시작했다.

「우와아아아!실롱군, 또 칸초되고 있어—!」

「하프 팬츠 너머로 강초라든지 최고로 너무 빠져나갈 것이다!」

「『오우!

클래스 중 학생들의 호기와 폭소의 시선이 책상 위에서 네 켄 채 굳어진 나에게 쏟아진다.  
부끄럽다.

수치심으로 머리가 어떻게 되어 버릴 것 같다.

정말 좋아하는 알루미눔의 눈앞에서, 다시 한번 강초를 먹고, 비도한 목소리를 올렸다.

하프 팬츠로 엉덩이를 강조하고 네 개의 기어가고 있던 모습을, 클래스 전원에게 웃고 있다.

"아하하! 알루미눔짱 봐봐! 시롱의 녀석, 칸초되어 새빨갈게 되어 굳어져 있어!"

남자 학생이 알루미눔을 향해 큰 소리로 깜짝 놀랐다.

「에, 아, 응...

알루미눔 짱은 얼굴을 새빨갈게 하고 부끄럽게 나에게 눈을 돌렸다.

그 리액션조차, 나에게 있어서는 맹렬한 굴욕이며, 부끄러움의 극한이었다.

그리고, 조자의 남자의 추격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강초를 한 검지 손가락을 코에 가깝게 쿨쿨과 냄새를 맡기 시작한 것이다.

「게——!! ! 콧세——!! ! 의 한가운데에 스뿐리하마는 、손가락에 시롱의 냄새가  
모로에 붙어 버렸어!

「뭐.....!?!」

나는 피가 느껴지는 것을 느꼈다.

교실중이, 균열만의 대폭소에 휩싸였다.

"에-!? 실롱 군의 항문, 오늘도 얼마나 똥 냄새!?"

「하프 팬츠를 넘어서는데 똥 냄새는 위험하다!」

「시롱군, 똥 모으고 있어!」

상세하게, 너무 구체적이고 극명하게, 내 항문과 똥이 클래스 중에서 바보가 되어 간다.

"치, 아니야.....!나의 엉덩이는... .. 똥은..."

반론하려고 하지만 부끄러움의 목소리가 많아서 잘 나오지 않는다.

"거짓말 하는거야! 이렇게 똥 냄새니까 틀림없네!

남자 학생에게 철저하게 부추겨져 나는 전신으로부터 땀을연설했다.

알루미눔씨에게, 내 항문이 격취의 똥 냄새라고 알려져 버렸다.

하프 팬츠 너머로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부드러운 상태의 항문에서 똥의 냄새가 났다고  
소란스럽다.

굴욕으로, 부끄러움으로, 전신의 모공이 열리는 듯한 감각.

「시롱군... .. 괜찮아...

알루미눔 짱이 신경 쓰지 않지만, 불쌍한 것을 보는 것 같은 눈으로 나를 응시해 온다.

그 상냥함조차, 지금의 나에게서는 최대의 수치 플레이일 밖에 없었다.

「다이, 죠부입니다.....!」

나는 밝은 붉은 얼굴 그대로 당황해서 책상 위에서 내려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의자에 허리를 내린 순간.

하프 팬츠 너머로 압박된 내 항문이 즈쿤과 뜨겁게 맥박을 쳤다.

진진, 진진.

항문의 열이,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게 퍼져 간다.

부드러운 하프 팬츠의 천을 통해서 먹은, 갑자기 칸초.

배의 바닥까지 즈돈과 달은, 그 압도적인 충격.

어제, 스스로 브리프 위에서 아무리, 폭, 하고 완급을 붙여 밀어도 얻을 수 없었던 쾌감이,  
지금, 내 몸을 완전하게 지배해했다.

「아.....하아...

부끄러워서 죽어 버리고 싶다는 생각과 동시에 배의 바닥이 쿵쿵과 격렬하게 떡.

눈치 채면 내 작은 꼬마는 딱딱해지고 있었다.

의자에 앉아 책상에 붙어 있기 때문에 들키지 않지만, 내 친친은 딱딱해지고 있었다. 이거였어.

내가 요구하고 있던 것은, 이 부드러운 하프 팬츠 너머로 먹는, 용서 없는 불의타의 강초였다.

방심하고 있던 섬세한 향문을, 역임에 관철되는 감각.

억지로 무허가로 향문을 펼치는 감각.

눈에서 별이 튀어나오는 강렬한 놀라움과 늦어져 오는 진진으로 한 달콤한 뜨거움.

자신의 손으로 누르는 것과는 번역이 다른, 진짜 갑작스런 쾌감.

가슴이 도쿰, 도쿰과 격렬하게 울려 호흡이 거칠어져 버린다.

「...

옆의 하임이 낮은 목소리로 더욱 내 마음을 쏘는 듯한 질문을 해왔다.

강초로 머리가 이상해진다.

너무 강렬한 강초로 뇌가 당해 바보가 된다.

그것은 도대체 얼마나 굴욕적이고, 기분 좋은 초초일 것이다.

「뭐, 되어 있지 않습니다! 머리 이상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지만, 하프 팬츠 안의 향문은 굉장히 뜨겁게 굳어 있었다.

클래스 모두에게 똥 냄새와 바보가되면서 강초의 쾌감에 떨고 있다니.

알루미늄의 바로 근처에서, 섬세한 향문을 자극되어 흥분하고 있다니.

나는 난 파렴치하고, 최저의 헨타이일 것이다.

하지만, 향문의 진진으로 한 가려움은, 내 머리를 새하얗게 물들여 간다.

하프 팬츠와 피부가 굼힐 때마다 칸초 된 순간의 "즈뵈!"라는 충격이 플래시백한다.

배의 안쪽까지까지 울린, 그 갑자기 손가락의 감촉.

스스로 눌러도 절대로 재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외부로부터의 충격.

「하아... .. 하아...

나는 책상에 엮드리면서 거친 숨을 내쉴다.

급식의 준비가 시작되어도, 클래스메이트들이 나의 「똥 냄새 강초」로 쿠스쿠스 웃고 있는 것이 들린다.

그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향문은 쿵쿵과 뜨겁게 환희의 목소리를 올리는 것이다.

부끄럽고 부끄럽고, 참을 수 없다.

알루미늄씨에게 똥 냄새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이, 굴욕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하지만 하프 팬츠 너머의 불의치는 강초에서 주어진 쾌감이 내 엉덩이를 뜨겁게 가려워 계속한다.

섬세한 향문에 깊이 새겨진, 압도적인 강초의 충격.

스스로 바지 위에서 누르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불의치기 때문에야말로 그 압도적인 기분 좋다.

나는 자신의 체조 착용의 하프 팬츠 위에서 살짝 엉덩이를 꼭 맞추도록 모지 모지시켰다.

진진과 뜨거운 향문이 의자의 감촉에 반응하여 한층 격렬하게 엮는다.

「... .. 아아... .. 역시...

작게 종얼거린 내 목소리는 급식 준비로 시끄러운 교실의 잡음 속으로 사라져 갔다.

알루미늄의 시선을 등에 느끼면서, 나는 배 아래까지 달은 강초의 여운과 멈추지 않는 수치심에 기분 좋게 몸을 가라앉히고 있었던 것이었다.

급식 시간이 시작되어도 내 향문의 뜨거움과 가슴이 심한 두근두근은 일방적으로 식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하프 팬츠 너머로 찢린 갑작스런 충격이 내 뇌리와 향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알루미늄 짱을 향해 「네! 함께 많이 먹자!」라고 말하고 있던 자신의 넉넉한 얼굴.

그 직후에 먹은 「즈뵈!!」라는 소리와 함께 배에 도착한 충격.

「우우!?!?!?」라고 하는, 어제 이상의 굉장한 비명.  
그 모든 것이 나의 섬세한 부위를 보다 뜨겁고 깊게 가려워하는 것이다.  
나는 손가락을 꼭 조이면서 엉덩이 안쪽에서 진진과 맥박치는 쾌감에 살짝 견뎌냈다.  
또 불의타로 칸초되면 어떻게 하자고 하는 공포와, 다음은 어떻게 무방비인 엉덩이를 보여줄까 하는 수상한 기대.  
그 두가 섞여서, 내 마음과 엉덩이는 어제 이상에 강초의 포로가 되어 버렸다.  
「... .. 내 항문...  
마음속에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나는 새빨간 얼굴을 울부짖고, 부드러운 하프 팬츠 속에서 뜨겁게 떨리는 항문의 감촉을 씹고 있었다.  
하임이 말한 강렬한 강초로 머리가 바보가 된다는 말이 머리 속에서 울린다.  
갑작스럽게 강초가 주는 압도적인 수치와 쾌감에 잠기면서, 내 급식 시간은 지나가는 것이었다.

## [Phase.3] 매혹의 셀프 강초와 최악의 실패

집에 돌아와 방에 갇혀도 낮에 학교에서 먹은 강초의 열이 내 항문에서 일방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신축성이 있는 하프 팬츠 너머로 먹은, 그 불의타의 격렬한 충격.  
배의 바닥까지 즈돈과 달은 느낌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 .. 하아...  
나는 자신의 방에서, 포츠리와 중얼거렸다.  
스스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져봐도, 자신의 손가락이라고 그렇게 안쪽까지 닿지 않는다.  
게다가, 자신의 손가락으로는 기세도 전혀 부족한 것이다.  
타인에게 불의타로 무거운 충격을 두드리기 때문에, 나의 섬세한 항문은 그렇게도 환희해 버린다.  
클래스의 모두 앞에서 「오우!」라고 한심한 목소리를 울리고, 손가락을 냄새 맡고 똥 냄새라고 소란을 당한 그 수치심.  
알루미늄 짱에 똥 냄새라고 생각되어 버린 굴욕.  
그 모든 것이 섞여서, 내 항문은 진진과 뜨겁게 태워지도록 알고 있었다.  
「...  
나는 참을 수 없어 바지를 벗고 버렸다.  
그리고, 방의 서랍으로부터 1개의 굵은 매직 펜을 꺼낸다.  
하반신은 하얀 팬티 1장만의 모습이 됐다.  
나는 매직 펜의 캡이 붙은 편의 평평한 머리를, 자신의 서류 너머로 항문에 딱 맞았다.  
브리프의 천을 사이에 두고, 딱딱한 매직 펜이 나의 무방비한 항문을 굉장히 누르고 있다.  
「... .. 이것이라면, 기세를 붙이면 대단한 충격이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마술 펜을 항문에 닿은 자세 그대로 침대 옆에 서 있었다.  
□ぐっと 무릎을 구부려 신체를 가라앉힌다.  
굳이 주저하지 않고, 한꺼번에 침대에 엉덩이로부터 향해 점프했다.  
우주를 춤추고 엉덩이에서 침대로 떨어진다.  
세운 매직펜을 이불과 엉덩이로 끼워넣도록 하고, 그대로 매직펜으로 침대에 착지했다.

즈뵃!!

「하우!?!?!?!」

방 안에 내 심상이 아닌 비명이 울려 퍼졌다.

너무 굉장한 충격에 눈에서 확 눈부신 별이 흩날린다.

침대의 부드러운 쿠션성과, 자신의 체중을 태운 낙하의 기세.

그들이 매직펜을 통해 내 항문을 직접 관통한 것이다.

마구 펜이 바지의 천을 말려들면서 항문에 순간적으로 즈보와 들어간 순간이 기분 좋다.

옷감마다 밀린 딱딱한 매직 펜이 내 섬세한 부위를 배 아래까지 즈동과 밀어 올려 간다.

아픈 것이 아니다.

압도적인 밀착감과 압입되는 무거운 중량감.

"아.....하아.....!광장합니다.....!마법 펜이 팬츠의 옷감마다.....나의 항문의 안쪽까지 달고 있습니다..."

충격으로부터 몇 초 늦게, 내 항문이 진진과 맹렬하게 뜨겁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침대 위에서 네 번 기어가면서 나는 거친 숨을 내쉰다.

이거야. 이것이다.

자신의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낙하의 기세에 의해, 매직 펜이 팬츠를 말려들면서 항문에 단번에 흘러 들어가는 쾌감.

「기분이 좋다...

나는 자신이 발견한 이 셀프 칸초의 훌륭한함에, 한순간에 빠져 버렸다.

팬츠 너머에 매직 펜이 박힌 엉덩이의 안쪽이, 뜨겁게 쿵쿵과 달콤하게 작다.

클래스에서 똥 냄새와 바보가 된 나의 섬세한 부위가 매직 펜으로 관통되어 환희하고있는 것이다.

「이제 한 번... .. 또 한번만 해보겠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튀어나오자 다시 마술 펜의 머리를 브리프 위에서 항문에 맞았다.

두 번째 도전이다.

무릎을 굴신시키고 기세 좋게 침대로 뛰어 올라간다.

공중에서 자세를 정돈하고 엉덩이에서 떨어지고 매직 펜으로 착지.

즈뵃!!

「하히앗!?!?!」

다시, 방에 나의 뒤집은 목소리가 뚫렸다.

2번째의 충격도 굉장하다.

마법 펜이 서류의 천을 안쪽으로 안쪽으로 말려들어 내 항문을 단번에 찌른다.

「아아... .. 역시 대단해.....!2번째도, 순간적으로 즈보해서 들어가..."

항문의 주위가 진진과 열을 띠고 배의 심까지 쾌감이 달린다.

갑작스럽지 않아도, 이 중량감과 스피드가 있으면, 충분할 정도로 기분 좋다.

나는 이미 완전하게, 이 매직 펜 착지 강초의 쾌락에 이성을 빼앗기고 있었다.

"다음은 더 높이 뛰어 봅니다.....!3번째는 더 대단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흥분으로 얼굴을 새빨갳게 하고, 호흡을 거칠게 하면서, 나는 3번째의 준비에 들어갔다.

브리프 위에서 매직 펜을 단단히 항문에 대고 있다.

3번째 점프.

이번은 아까보다 높고, 힘차게 도약했다.

침대 위로 엉덩이에서 떨어지고 매직 펜으로 완벽하게 착지한다.

즈뵃!!

「하응!?!?!?!」

세 번째 착지는 지금까지 가장 깊고 무겁고 내 항문을 관통했다.

마법 펜이 바지 원단을 한계까지 휘감아 내 섬세한 부분을 자극한다.

눈으로부터 별이 튀어나오는 커녕, 한순간 시야가 새하얗게 될 정도의 쾌감과 충격.

진진, 진진.

칸초 된 나의 항문이 환희의 비명을 올리도록 맥박치고 있다.

"하아..... 하아.....!광장합니다... .. 최고로 기분 좋다.....!자신의 방에서, 브리프 모습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니, 부끄러운데... .. 엉덩이가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침대 위에서 번민하면서, 완전히 이 쾌감에 병에 걸려 있었다.

스스로 하는 매직 펜 착지 강조.

이것이라면, 학교에 가지 않아도 클래스메이트로부터 똥 냄새와 바보가 되지 않아도, 강렬한 강조의 감촉을 맛볼 수 있다.

나는 황홀한 표정으로 4번째 점프를 위해 침대 위에 일어섰다.

팬츠 1장의 모습으로, 매직 펜을 제대로 항문에 대고 있다.

「다음은 더.....더 강하게...

한계까지 무릎을 구부려 최고의 일격을 자신에게 주려고 했다.

확실히 그 때였다.

가차.

노크도 없이, 나의 방의 문이 기세 잘 열었다.

「... ..시름, 저녁의 준비가...

방에 들어온 것은 쌍둥이 누나의 하임이었다.

「하아아아!?!?!」

예기치 않은 하임의 침입에 나는 심장이 멈출 정도로 놀랐다.

브리프 모습으로, 엉덩이에 매직 펜을 대고 침대 위로 뛰어오르고 있던 최악의 순간.

초조한 나는, 다리를 격렬하게 미끄러져 버렸다.

「우와, 아..... 어?!」

침대 위에서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나는 그대로 바닥을 향해 신체마다 떨어졌다.

타겟으로 하고 있던 부드러운 침대가 아니라, 마루의 단단한 바닥에.

게다가 침대 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통상의 점프보다 훨씬 높은 위치, 그리고 낙하의 기세가 단차에 치열하다.

엉덩이에 대고 있던 매직 펜이 단단한 바닥과 내 항문 사이에 수직으로 끼워진다.

즈보봇!!

「히하우!?!?!?!」

목이 찢어지는 것 같은, 들은 적도 없는 대절규가 방안에 울려 퍼졌다.

딱딱한 바닥.

침대와 비교할 수 없는 경도 바닥재.

그리고 침대에서 떨어지는 격렬한 기세.

그 모든 에너지가 매직 펜 1개에 집중해 내 브리프 위에서 항문을 폭발적인 위력으로 직격한 것이다.

스스로 자신에게 초절강렬한 셀프 칸초를 버려버린 순간이었다.

배를 지나서 가슴 둘레까지 관통한 것 같은 심상이 아닌 충격.

눈으로부터는 커녕, 전시계로부터 수천의 별이 흩어졌다.

너무 충격의 힘에, 머리 속이 새하얗게 되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몇 초 동안, 완전히 사고가 정지했다.

아픈 것이 아니다.

단지, 너무 흥악하고 너무 강렬한 충격이, 나의 섬세한 항문을 찢었던 것이다.

「.....아.....가.....아...

마루 위에서, 나는 바지 모습 그대로 넘어져서 기절했다.

몇 초 늦게, 맹렬한 흔들림과 열이, 내 항문 전체에 폭발적으로 퍼져 왔다.

진진 진진!!

진진 진진!!

지금까지의 강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열이 항문을 덮친다.

마법 펜이 팬츠의 천을 극한까지 말려들어, 내 항문의 안쪽의 안쪽까지 박혀 있었다.

「하아...

목소리가 되지 않는 비명을 지르면서 나는 바닥에서 몸을 둥글게 했다.

스스로 자신에게 버렸다, 초강력한 셀프 칸초.

딱딱한 바닥에서의 착지라는 사고가 낳은, 최악으로 최고의 강초의 충격.

예기치 못한 낙하의 갑작스런 느낌과 단단한 바닥에 의한 용서가 없는 중량감.

그들이 합쳐진 결과, 내 항문은 파열할 정도로 달콤한 가려움과 쾌감에 휩싸였다.

부끄럽다.

하임보기되었다.

브리프 모습으로 매직 펜을 엉덩이에 대고 점프하고, 다리를 미끄러져 자폭 칸초를 닦는 어리석은 모습을.

부끄러움으로 죽어 버리고 싶다.

하지만, 자신 완성해 버린 셀프 칸초의 충격이 너무 강렬해서, 신체가 가려져 움직일 수 없다.

진진과 뜨거운 항문이 쿵쿵과 격렬하게 수축을 반복하고 있다.

".....하아.....하아....."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놀랄 만한 입구쪽을 올려다봤다.

문 앞에 서 있는 하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하임은, 나의 예상에 반해, 전혀 놀라지 않았다.

큰 소리를 올리는 것도 아니고, 어리석고 도망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차가워진 얼음 같은 눈으로, 바닥에서 기절하고 있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 .. 뭐하고 있어, 실롱」

하임이 낮고 온도가 없는 목소리가 방에 울린다.

「하, 하임...

나는 브리프 모습 그대로, 당황하고 변명하려고 했다.

하지만, 강조된 항문의 진진으로 한 열이 굉장하고, 잘 말이 나오지 않는다.

「...

하임의 서리가 내린 시선이 내 팬티와 엉덩이에 찢린 채의 마법 펜에 쏟아진다.

놀라움 없이 마치 길가에 떨어지고 있는 쓰레기라도 보는 것 같은 차가운 눈.

그 냉혹한까지의 울퉁불퉁한 시선이 나의 수치심을 더욱 가혹하게 부추겼다.

「으, 아... .....!하임... .. 보지 말아주세요... "

나는 붉어지고 얼굴을 가렸다.

좋아하는 알루미늄 짱 앞에서 칸초되었을 때의 부끄러움과는 또 다른, 신내인 하임에

내려다 보이는 절망적인 수치심.

자신의 쌍둥이 언니에게, 서류 1장으로 매직 펜 셀프 칸초를 하고 자폭한 곳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굴욕으로, 비참하고,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 맹렬한 수치심이 자극이 되어, 셀프 칸초를 낳은 나의 항문을 한층 더 뜨겁게 흔들린다.

진진. 진진.

딱딱한 바닥에 격렬한 착지에 의한 충격적인 셀프 칸초.

팬츠의 천을 한계까지 말려들어, 나의 섬세한 부위를 깊게 입은 매직 펜.

그 충격의 여운이 하임의 차가운 눈과 합쳐져 내 하반신을 달고 뜨겁게 녹여 간다.

「...

하임은 어리석음조차 섞이지 않고, 담담하게 그만큼 말하면, 바탄과 문을 닫아 나갔다.

방에 혼자 남겨진 나는 잔잔한 실내에서 허하와 거친 숨을 내뿔었다.

「... .. 우우... .. 하임에...

나는 바닥 위에서 뻘뻘스럽게 몸을 떠올리게 했다.

팬티 너머로 느끼는, 자신의 항문의 열렬한 불빛.

마루에 착지한 순간의 「즈보봇!!」이라고 하는 소리와, 배까지 관통된 무서운 정도의 충격.

스스로 자신에게 삼켜버린 너무 강한 셀프 칸초.

침대에서 착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격렬한 낙하의 기세와, 바닥의 단단함.

갑작스럽지 않았을 텐데, 다리를 미끄러져 떨어진 것으로, 결과적으로 완벽한 의심이 되어 버렸다.

「아.....하아..... 어...

나는 뜨거워진 항문을 짹 조였다.

아픈 것이 아니다.

무겁고, 깊고, 배의 바닥까지 달은 강렬한 강초의 감촉.

눈으로부터 별이 튀어나올 정도의 충격과, 그 후에 오는 격렬한 진진감.

하임에 보인 부끄러움과 함께, 내 항문은 환희의 한계를 맞이하고 있었다.

「... .. 내 항문...

스스로 자신에게, 이런 포악한 셀프 칸초를 치고 흥분하고 있다니.

구르고 있는 매직 펜을 손에 들고 나는 그 침단을 바라보았다.

브리프의 천을 말려들어 내 항문에 찔린 사랑스러운 매직 펜.

이 펜이 내 섬세한 부위에 최고의 쾌감을 준 것이다.

「.....웃.....하아...

나는 천천히 일어서, 진진과 가려운 엉덩이를 잡았다.

브리프 위에서 만지는 것만으로도 칸초 된 항문이 과민하게 반응한다.

학교에서 컨디션의 남자가 된 불의치는 강초.

체조 착용의 부드러운 하프 팬츠 너머로 먹은 강초.

그리고, 자실의 바닥에 낙하해 자신 완성해 버린, 이 격렬한 셀프 칸초.

모든 충격이 내 항문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 .. 똥 냄새는 바보가 되어... ..

알루미늄의 얼굴이 머리에 떠있다.

내일 학교에 가면, 또 알루미늄 짱은 나의 강초를 기억하는 것일까.

「시름군의 항문, 똥 냄새났어」라고 생각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얼굴로부터 불이 나올 정도로 부끄럽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이 셀프 칸초로 뜨거워진 항문을 더욱 사랑스럽게 자극해 간다.

「.....갈아입고, 아래로 내리지 않으면...

나는 벗고 버리고 있던 바지를 들고, 떨리는 다리로 다시 신었다.

바지의 옷감이 엉덩이에 닿을 때마다 진진으로 한 가려움이 달린다.

걸을 때마다 자신을 완성한 셀프 칸초의 여운이 배의 바닥을 자극한다.

하임의 차가운 눈을 떠올리면서 나는 계단을 1단씩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진동조차 내 섬세한 향문에는 달콤한 쾌락인 것 같았다.  
칸초의 갑작스런 느낌과 타인의 손이나 낙하의 기세에 의한 무거운 충격.  
스스로 매직 펜을 사용해 침대나 바닥에 점프하는 쾌감을 알게 된 나.  
이제 다시는 강초를 몰랐을 무렵의 자신에게는 돌아갈 수 없다.  
즈뵈트!! 그 충격의 소리와 느낌이 내 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니까.  
나는 붉은 얼굴인 채, 엉덩이의 열을 씹으면서 다이닝으로 향했다.  
하임의 서늘한 시선을 받으면서 나는 진진으로 하는 향문을 모지모지와 움직여 의자에 앉는다.  
스스로 자신에게 키운 강렬한 셀프 칸초의 쾌감에 가슴을 얹게 하면서.  
내일, 학교에서 또 갑작스런 강초를 먹을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공포를 안고.  
'나는 뜨겁게 빛나는 자신의 향문의 느낌을 언제까지나 사랑하는 듯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다.  
갑작스런 치열함과 수치심에 시달린 나의 엉덩이는 조용히 밤의 방문을 맞이했다.

## [Phase.4] 하임의 추궁과 무서운 제안

저녁을 먹고 마시고 식기를 정리한 후의 거실.  
쭉 돌아오지 않는 부모님.  
집안은 언제나처럼 나와 하임의 두 사람이었다.  
나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려고 계단으로 가려고 했지만, 뒤에서 하임의 조용한 목소리에 불러 멈췄다.  
「...  
「에...  
"...교육에 대한 지침"  
교육적 지도라는 수상한 단어에 나는 목을 굽고 거실의 소파에 허리를 내렸다.  
셀프 칸초의 충격으로 아직 내 향문은 진진과 뜨겁게 불을 피고 있다.  
바지 위에서 의자를 만지는 것만으로, 엉덩이의 안쪽이 쿵과 흔들리는 듯한 감각이 있었다.  
하임은 나의 대면에 앉아서 테이블에 팔꿈치를 붙이고, 차갑게 차가운 눈으로 나를 응시해 왔다.  
그 시선이 너무 차갑고, 나는 무심코 몸을 꺾어 버린다.  
「... .. 아까 방에서의 녀석, 뭐야?」  
「자, 아까라고... .. 무슨 일입니까.....?」  
나는 흐리게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숨길 수 없었다.  
하임은 「하아...  
「...  
「워, 워야!?!?」  
너무 스트레이트한 말을 찔렀고, 나는 외침을 들고 뛰어올랐다.  
칸초 아나니.  
하임의 입에서 나온 그 추잡하고 직접적인 단어에 단번에 얼굴이 끓는 것처럼 뜨거워진다.  
「워, 무슨 말씀하십니까 하임! 다르다! 그건 사고로.....!」  
「...  
하임은 일체의 용서도 없고, 나의 부끄러운 행위를 폭로해 간다.

「우우.....!보지 말라고 말했잖아요...」

나는 나의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숨겼다.

부끄럽고 죽고 싶다.

실제 언니에게 매직 펜으로 셀프 칸초 아나니를 하고 있던 현장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말로 지적된다니.

부끄러움으로 몸 속에서 땀이 쏟아져 바지 안의 향문이 짝 굳게 달린다.

하지만, 하이임의 추궁은 그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았다.

「...」

하이임은 지토 눈으로 내 얼굴을 들여다 왔다.

「... ..오늘의 학교에서의 녀석도 그럴쥬」

「학교에서의... ..녀석.....?」

4시간째의 체육이 끝난 후.

하이임의 서리가 내린 목소리가 내 뇌수를 직접 흔든다.

「...」

「달라...나는 단지, 알루미늄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만으로...」

「... 초초 해주세요라고 어필하고 있었어.

「뭐...」

나는 피가 느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칸초 되고 싶어서 일부러 하프 팬츠 차림으로 네번 기어가고 엉덩이를 내밀고 있었다니.

클래스 모두에게, 그런 파렴치한 의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니.

「그런...」

「...」

하이임의 말이 날카로운 칼처럼 내 심장에 꽂힌다.

클래스메이트 전원에게, 내가 강초 좋아하는 헤타이라고 들키고 있을지도 모른다.

향문에 즈보!! 라고 손가락을 찔러서 「하우!?!」라고 목소리를 올리는 것을, 기대해 4개씩 기어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을지도 모른다.

너무 굴욕과 수치심에 머리가 쿠라쿠라로 왔다.

그리고 하이임은 가장 접하고 싶지 않은 부분으로 밟아 온 것이다.

「...」

「웃.....!?! 아, 알루미늄이...

알루미늄의 이름을 낸 순간, 내 심장이 도쿰! 라고 격렬하게 뛰어올랐다.

좋아하는 알루미늄 짱에.

눈앞에서 내 향문이 똥 냄새로 떠들썩했던, 그 알루미늄 짱에.

「시름군, 칸초되고 싶어서 4개씩 기어가고 있는 거야...

칸초의 쾌감에 떨리는 내 얼굴을 그런 식으로 볼 수 있었다면.

「으, 우아아아...

나는 필사적으로 밝은 붉은 얼굴로 큰 소리를 냈다.

자신이 강초를 좋아하는 것도, 알루미늄을 좋아하는 것도, 전부 숨기고 싶어서 필사적이었다.

하지만 하이임은, 나의 외침에 대해서도 안색 하나 바꾸지 않았다.

「... ..발레 발레이고」

포츠리와, 어리석은 대로 나를 바보로 하는 하이임.

「...」

「으..... 흠.....!」

구의 소리도 나오지 않을 정도의 근거의 열.

나는 얼굴을 새빨갳게 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

하이임이 말하는 대로다.

나는 알루미늄을 좋아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강조되는 것을 좋아하게 되어 버렸다.  
부드러운 하프 팬츠 너머로 항문을 즈보!! 라고 찔리는 쾌감이 병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절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쌍둥이의 언니인 하임 앞에서 자신이 강초로 기분 좋아지고 있는 헨타이다니 입이 찢어도 인정할 수는 없다.

나는 절대로, 강초가 기분이 좋다고 하임 앞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마음에 맹세했다.

「별로...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계속 토하는 나.

하지만, 그 말과는 반대로, 바지 아래에서 엉덩이의 구멍이 쿤과 달콤하고 뜨겁게 줄어들고 있었다.

칸초의 감각을 말로 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항문이 반응해 버리는 것이다.

하임은 그런 나의 엉덩이 근처를 살짝 보면 허와 깊이 숨을 내뿔었다.

그 얼굴은 어지럽히기보다는 어딘가 심하게 불쾌해 보였다.

언제나 로션인 하임이, 분명한 불편함을 감돌게 하고 있다.

「... ..실름, 정말로 얄은데」

「에.....?」

하임의 차가운 목소리가 즈시리와 무겁게 울린다.

「... .. 뭐가 불쾌해.

하임은 불쾌하게, 나를 노려보도록 했다.

「... ..

「그, 그런 것은...

「... ..

하임의 말은, 내가 숨기고 있던 제일 더럽고 부끄러운 부분을 용서 없이 쏟아내 왔다.

좋아하지 않는 클래스의 남자에게, 불의타로 칸초되어 기분 좋아지고 있었던 것.

똥 냄새와 소란스럽게 하면서, 섬세한 항문을 자극받고 괴로웠던 것.

이를 하임은 "에로하고 알고 사랑이 없다"고 잘라낸 것이다.

부끄러움과 굴욕으로 눈물이 눈에 흘러넘친다.

「우우...

「... ..

「... .. 에?」

나는 눈물 그대로, 포칸과 입을 열었다.

하임은 당당하게, 믿을 수 없는 말을 입으로 한 것이다.

「... ..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너무 폭탄 발언에, 내 생각은 완전히 동결했다.

알루미늄 짱에게...

정말 좋아하는, 그 귀여운 알루미늄 짱에...

나의 무방비한 항문을... .. 알루미늄의 손가락으로, 즈보!! 라고 찔러 준다... ?

「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방안에 나의 절규가 굉장했다.

얼굴은 커녕, 귀도 목덜미도, 전신의 피부가 새빨갈게 물든다.

열폭주를 일으킬 만큼 머리 속이 패닉이 되었다.

"뭐, 무슨 말씀하십니까?하임!?!.....!그런 것, 있을 리 없잖아요!!"

나는 일어서서 손을 흔들며 격렬하게 반박했다.

알루미늄 짱에 내 항문을 깎아 낸다니, 그런 기적같은 일, 있을 리가 없다.

알루미늄 짱에게 내 섬세한 구멍을 손가락으로 찔러 "하읏!?"라고 외치다니 너무

부끄러워서 상상한 것만으로 죽어버린다.

필사적으로 비명을 지른 나를 보고 하임은 코로 웃었다.

「... .. 호라네」

「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지, 실롬. ....『되고 싶지 않아』가 아니고」

하임의 차가운 눈동자가 내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바라보듯이 발사해 온다.

"아.....! 아, 아니, 그것은 말의 아야로..."

나는 당황해서 입을 밀었지만, 이미 늦었다.

칸초 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루미늄 짱에 칸초되는 것을 당연하게 기대하고, 그런 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있을 뿐의 반론.

역시, 나는 칸초를 좋아한다고 하임에 완전히 눈에 띄게 되어 버린 것이다.

「... .. 역시, 강조되고 싶어.

하임은 확신이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치, 다릅니다! 다르다! 나는 알루미늄 짱에 칸초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칸초는 너무 싫어요!"

나는 필사적으로 부정을 계속했지만, 배의 바닥은 쿵쿵과 격렬하게 떨고 있었다.

알루미늄 짱에 강조되는 망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게 된 것이다.

알루미늄의 화려하고 귀여운 손가락이, 나의 브리프나 하프 팬츠 너머로, 무방비인 항문에 일직선에 꽂히는 장면.

즈뵃!! 라고 찢러, 알루미늄의 눈앞에서 「하우!?!」라고 한심한 목소리를 올리는 나.

「시롬군의 항문, 굉장히 따뜻하네...

상상한 것만으로, 엉덩이의 안쪽이 뜨겁고 뜨겁고, 어떻게 꽤 보였다.

하임이 말하는 대로다. 나는 클래스의 남자 굉장한 강조에서 흥분하고 있던 얇은 헨타이로, 사실은 좋아하는 알루미늄 짱에 항문을 관통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것이다.

완전하게 파괴된 부끄러움에, 나는 그 자리에 무너질 것 같았다.

그런 나를 내려다보면서, 하이임이 포기하고 무서운 제안을 덧붙였다.

「... .. 협력해 주어도 괜찮아?」

「.....에.....?」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멍하니 하임을 올려다봤다.

협력.....? 하임이... .. 나와 알루미늄의 강조에게...

「... ..

하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악마의 속삭임 그 자체였다.

하임이 협력해 주면, 정말로 알루미늄으로부터 불의타의 강조를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알루미늄 짱의 손가락이, 나의 섬세한 부위를 불의치고 즈보!! 라고 찢러 올지도 모른다.

남학생의 칸초나, 자신의 매직 펜 셀프 칸초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궁극의 칸초.

가슴이 도쿰 도쿰과 파열할 정도로 맥박이 난다.

엉덩이의 구멍이 뜨겁게 익어, 지금도 누군가에게 찢리고 싶어하는 것을 알았다.

「호, 진짜입니까 하이임...

기대에 눈을 빛낼 것 같아지고 나서는 당황해서 자신의 입을 막았다.

이로써, 자신으로부터 「알루미 짱에 칸초되고 싶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 것은 아닐까.

하임은 불쾌한 얼굴 그대로, 나에게 엄격한 조건을 몰아왔다.

「... .. 단, 조건이 있다」

「지, 조건.....?」

「... .. 지금 여기서, 강조가 기분 좋았다고 인정하는 것」

하임의 서리가 내린 목소리가 내 뇌 안에 깊게 찢린다.

「... ..

최저의 시련이었다.

실제 언니를 향해 자신으로부터 "강초기분좋았습니다.백색해야 한다니.

남자에게 불의타로 향문을 관철해 흥분한 것도, 방에서 서류 차림으로 매직 펜 착지 강초를 해 기분 좋아진 것도, 전부 자신의 입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머리를 흔들며 거절했다.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서 혀를 씹어 죽어버릴 것 같다.

「... .. 그럼, 이 이야기는 하지 않아. ...

하임은 차갑게 말하고,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아... .. 기다려 주세요 하임...

나는 무심코, 하임의 옷자락을 잡아 버리고 있었다.

뇌리에 구워지는 것은, 알루미늄 짱에 갑작스럽게 갇혀지는 이미지다.

알루미늄의 화려한 손가락이, 나의 부드러운 하프 팬츠나 브리프를 찢는 기세로, 향문에 즈보!! 와 뛰어 오는 느낌.

「하우!?!」라고 비명을 지르는 나를, 알루미늄이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것인가.

클래스의 남자 낯선 칸초가 아니라, 좋아하는 알루미늄 짱에 주어지는, 사랑과 수치심이 가득한 완벽한 의심 칸초.

그 쾌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는 것이다.

「... .. 뭐야? 인정하는 거야?」

하임이 다리를 멈추고 내려다 온다.

그 눈은, 어디까지나 차갑고, 기분이 좋고, 그리고 나의 파렴치한 고백을 지금인가 지금일까라고 기다리고 있었다.

굴욕이었다.

쌍둥이의 언니에게 약점을 쥐고 자신의 헨타이성을 백색으로 만들어지는 굴욕.

하지만, 가랑이의 안쪽, 나의 섬세한 향문은 진진과 뜨겁게 맥박치고, 하임의 거래에 응하라고 외쳤다.

남자에게 강조되어 기분 좋았다.

마술 펜으로 셀프 칸초를 하고 기분 좋았다.

스스로 바지 위에서 아무리 눌러도 만족할 수 없을 정도로 강초의 포로가 되어 버렸다.

그 욕망이, 나의 경미한 이성을 완전히 칠해 갈 것이다.

「으, 우아.....아...

얼굴에서 불이 나올 것 같았다.

전신이 뜨겁다.끓인다., 호흡이 허하와 거칠게 된다.

나는 눈물을 뽀뽀로 흘리면서, 하임의 발밑에서 으쓱했다.

자신의 섬세한 엉덩이의 구멍을 꼭 조이고, 뜻을 결코 입을 벌린다.

「... .. 기... .. 기분...

짜내는 것 같은 작은 작은 목소리.

「...

하임은 용서하지 않고, 추격의 말을 요구해 온다.

나는 눈을 감고 두 주먹을 잡고 절망적인 수치심과 함께 외치도록백색했다.

「카, 칸초가 기분이 좋았어요! 학교에서...

말해 버렸다.

자신으로부터, 하임의 앞에서 강초의 쾌감을 인정해 버린 것이다.

「.....방에서의 녀석은?」

하임의 목소리는 풀리지 않는다.

「방에서도...

눈물과 땀으로 엉망이 되면서, 나는 자신의 헨타이 행위의 모든 것을 하이임에 고백했다.

부끄러움으로 미칠 것 같다.

그러나 고백한 순간, 내 향문은 배의 바닥에서 기뻐하도록 진진과 뜨겁고 격렬하게 흔들렸다.

「...

하임은 서늘하게 말을 걸자 만족스럽게 구각을 약간 올렸다.

「...

그렇게 중얼거리는 하임의 눈동자 안쪽에 머무는 수상한 빛에, 나는 공포와 굉장한 기대로 몸을 떨게 하는 것이었다.

체험판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으면 계속되는 제품판도 읽어 주시면 기쁩니다.